

‘순천정원워케이션’ 일·삶 공존 새 모델 제시

2024년 이후 1000여개 기업·기관서 1750여명 참여
소멸대응·근무문화 혁신...생활인구 증가·경제 활성화

순천만국가정원이 자연을 향유하는 공간을 넘어 휴식과 업무가 공존하는 워케이션 공간 ‘머무는 일터’로 진화하고 있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정원 인프라를 활용한 정원워케이션은 기존 콘크리트 업무 환경을 정원과 자연으로 확장에 채류형 근무 모델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순천시는 2024년 4월부터 정원워케이션을 본격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1000여개 기업·기관에서 1750여명이 참여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참여 대상은 민간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 프리랜서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별 참여 비중은 경기권 34.4%, 경상권 32.8%, 전라권 16.5%, 충청권

12.6% 순이었다.

참여자들은 평균 2~3일 이상 순천에 체류하며 근무와 휴식을 병행했고, 이 과정에서 숙박·외식·교통·관광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지며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복 참여 기업과 재방문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원워케이션이 일회성 체험이 아닌 “다시 찾는 근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정원워케이션은 단순한 근무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파트너사의 기획 및 운영에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로컬콘텐츠 체험, 정원 해설 투어 등을 통해 참여자들

이 자연스럽게 지역 일상에 스며들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 방문객이 아닌 “지역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로 확장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정원에서도심으로 마을 속박 프로젝트인 ‘실랑계’와 연계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일부 참여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개인 여행이나 가족동반 방문으로 순천을 다시 찾고 있다.

시는 향후 정원워케이션을 지방소멸 대응과 근무문화 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사업으로 보고, 지역관광·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도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한 수도권소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



정원워케이션 봄 풍경



정원워케이션 센터에서 정원을 배경으로 일과 휴식을 병행하고 있다.

상 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워케이션 사전 체험 상품을 운영해 기업 이전 및 투자유치의 마중물로 정원워케이션을 활용해 나

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을 중심으로 일과 휴식, 지역이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워케이션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김성 장흥군수(오른쪽)가 최근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차례로 만나 2026년도 국비 반영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장흥, 보림사 개발 국비 확보 ‘동분서주’

기획예산처·국가유산청 방문...현안사업 지원 건의

장흥군이 보림사 개발과 도로 확장 등 국비 확보에 집중했다.

26일 장흥군에 따르면 김성 군수는 박창환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차례로 만나 2026년도 국비 반영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김 군수는 보림사 주변 정비사업, 보림사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장흥 순자~대덕 연지 간 4차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 등 핵심 현안사업을 집중 건의했다.

군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까지 지속적인 건의 할

동을 이어가며, 정부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군은 국회를 방문해 보림사 주변 비자립 경관 조성사업, 보림사 관광자원 구축사업, K-노벨문학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김성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장흥의 미래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고흥, 1000만 관광시대 ‘우주철도 999’로 띄운다

코레일과 공동...열차표 반값·지역상품권 10만원 등 혜택

우주를 향한 꿈이 현실이 되는 곳인 고흥군이 2월 코레일과 손잡고 우주급 혜택을 담은 철도 여행상품 ‘우주철도 999’를 전격 출시하며, ‘관광객 1000만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 최고 수준의 환급’이다. 코레일의 지역사랑 철도여행과 연계된 이 상품은 고흥을 찾

는 철도 이용객이 지정된 관광지 6개소 중 한 곳만 방문해 QR 인증을 마쳐도 철도 운임 5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하지만 고흥의 진짜 유혹은 그다음부터다. 군은 여행객이 지역에 깊숙이 머물며 고흥의 속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채류형 관광’에 화력을 집중했다.

고흥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식당을 이용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여행객

에게는 1인당 1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규모의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이 돌아온다.

환급 절차 또한 스마트하다. 여행 전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설치하고, 여행 후 고흥관광 홈페이지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상품권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군의 세련된 행정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주철도 999 여행상품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이미

지를 브랜드화해 철도 여행객의 방문을 이끌고,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차 여행이 주는 특유의 낭만과 함께 고흥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안의 비경과 우주를 향한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곳, 고흥. 이번 ‘우주철도 999’ 사업의 구체적인 참여 방법과 QR 인증 관광지 리스트는 고흥관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



보성, 시설 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확대

일반음식점 등 최대 700만원

보성군은 최근 청사 소회의실에서 ‘2026년 보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위생업소 시설 환경 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한도 조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보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생업소 지원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안전한 위생 관리 사업 등을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시설 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한도 상황과 지원 대상 확대 등이다.

심의 결과 일반음식점 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됐으며, 이·미용업소 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한도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400만원이다.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항도 음식 일반음식점으로 허가·운영 중인 영

업자에 한해 지원하던 기준을 완화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카페, 호프 등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음식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조건은 보조금 50%, 자부담 50%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9월 외식업·이·미용업 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물가 상승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 조치다.

일반음식점 및 이·미용업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은 2월부터 가능하며, 군 문화관광실 위생관리팀(061-850-5220)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한도 상황으로 지역 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와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이 많이 신청해 음식업계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

광양, 52억 투입 보훈회관 신축한다

하반기 착공...내년 준공 계획

광양시는 노후화되고 협소한 보훈회관을 오는 2027년까지 새로운 보훈회관을 신축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은 1992년 광양읍 호북길 4-14에 대지 258㎡, 연면적 401㎡의 3층 건물로 건립했는데 낡고 비좁아 10개 보훈단체 있으나 5개 단체만 입주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광양읍 칠성리 531-1(대지 854㎡)에 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 건물(연면적 1200㎡)로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보훈회관 1층은 사무실, 다용도실, 다목적실, 회의실, 화장실, 2층에는 사무실, 다용도실, 휴게 라운지, 3층에는 사무실, 다용도실, 회의실 등이 입주하게 된다. 보훈회관이 준공되면 상이군경회, 전몰



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광복회광양시지회 등 보훈관련 10개 단체가 입주해 사용하게 된다.

하태우 광양시 주민복지과장은 “보훈회관이 준공돼 10개 관련 단체가 모두 입주하게 되면 보수 비용과 단체별 운영비를 절감해 효율성을 높이고 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함양하는 교육공간과 보훈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jin@

곡성,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최대 400만원...안정적 지역 정착 기대

곡성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형 결혼축하금과 곡성형 결혼축하금을 연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형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이 곡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곡성형 결혼축하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전남형 결혼축하금을 받은 부부 또는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했으나 전남형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부에게 연 1회 100만원

씩 최대 2년간 2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형과 곡성형 결혼축하금을 모두 받을 경우, 부부당 최대 400만원(3회 분할 지급)의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전남형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혼인신고일로 부터 1년 6개월 이내이며, 곡성형은 전남형 수령 여부에 따라 단계별 신청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결혼축하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변 기자 hnnews1@